

전주·완주 통합, 기업 10곳 중 9곳 ‘찬성’

전주상의,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실질적 상생 약속 필요’

전주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전주·완주 행정통합 관련 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 인근 지역 기업들 가운데 약 90%가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주 지역에서는 전주 중심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2024년 10월과 2025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완주 및 인근 지역(남원, 임실, 순창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에는 총 70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회원사 1,400여 곳 중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진

성 회원’ 약 560곳을 대부분 포함한 수치다. 지난해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전주 기업 89.8%, 완주 기업 87.7%가 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올해 2차 조사에서는 각각 84.1%, 76.4%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기타 지역(남원·임실·순창) 기업들도 76.1%가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이 통합에 찬성한 주된 이유는 ‘거점 광역도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였다. 완주 기업은 이외에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전북의 위상 강화’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전주

기업은 ‘예산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 및 복지 향상’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완주 기업 중 일부는 ‘완주군 독자 발전 저해’(32.6%)와 ‘전주 중심의 일방적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를 우려했다. 협조시설 유지와 세금 부담 증가, 행정 혼선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전주 기업의 경우 ‘통합 후 재정 악화와 기업지원 축소’를 걱정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통합 추진 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완주 기업들이 ‘주민 갈등 해소’와 ‘지차단체 간 신뢰 형성’을 꼽았으며, 전주 기업은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주상의는 응답률과 관련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체 회원 기준으로 30% 수준이지만, 실질적 활동 기업 기준으로는 80~90%가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장단 내부에선 전주·완주를 넘어서 익산, 김제 등 인근 도시까지 포괄하는 ‘메가시티’ 구상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상의는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북의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합이 진정한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완주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본격 실시한다.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공, 체감온도 35도… 폭염 속 도민 건강 지키기 나서

전북개발공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본격 실시한다. 최근 전북지역은 연일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개발공사는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 조치)과 작업중지, 온열질환 민감 군 관리,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공사 사업현장에 배포

하였다. 전북개발공사는 관리 중인 공공 시설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한편 수분공급을 위한 음료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해마다 심각해지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폭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과 옥외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에 더욱 세심과 관심을 기울여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상근기자

전북은행, 폭염 취약계층 위한 4천만원 상당 ‘시원 키트’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4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2025 ‘시원(COOL) 키트’ 나눔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무더위 극복을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4000만원 상당의 ‘시원(COOL) 키트’는 도내 지자체를 통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폭염 취약계층 9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날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은행지역 사랑봉사단 30여명은 선봉기, 여름이불, 팔토시, 쿨타월 등으로 구성된 ‘시원(COOL) 키트’ 900박스를 직접 제작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확산 및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예측하기 어려워진 날씨 탓에 무더위로 지친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ESG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은행 발전 방향과 과제’

전북은행 정원호 노조위원장, 부산서 열린 토론회 참석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 은행 및 핀테크 기업 등과의 치열한 경쟁과 지역소멸 위기까지 마주한 지역은행의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일보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사단법인 분권균형 공동 주최로 지난 10일 부산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은행 발전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은행의 공공적 역할과 제도적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생태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북은행 정원호 노조위원장(전국금융산업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의회 의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

서 지역경제가 지동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관 이전 후 지역 인제 채용과 지역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자금 순환 구조가 병행돼야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은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특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가진 시중은행들과 규모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전북은행은 서민 금융 지원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점포를 적자 운영 중”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생각하면 지역은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지자체 금고 지정 시 지역은행 우대 기준 강화 △공공기관 자금의 일정 비율 지역은행 예치 의무화 △비금융 부문 수익



모델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지역은행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인 과제로 참석자 대부분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자금 예치 일정 비율 의무화와 지자체 금고 지정 시 지역은행 우대를 꼽았다.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 기여도를 반영하는 별도 평가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은행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 체결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중호)과 14일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이전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수요발굴부터 기술이전 중개, 후속 사업화 지원까지 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



다. 본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발굴 강화 △서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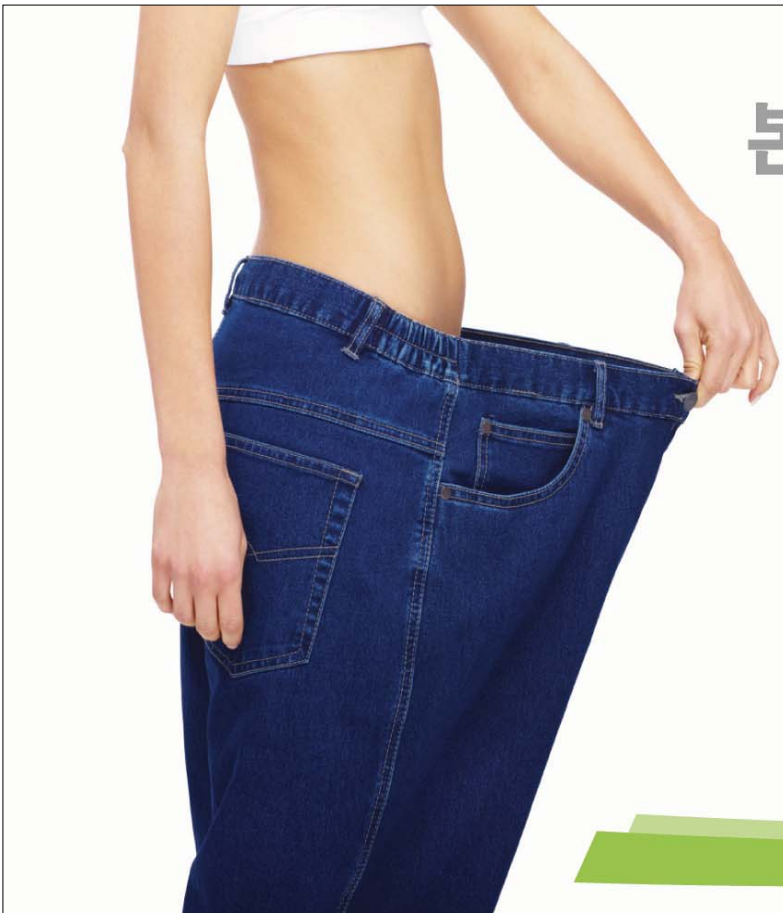
터즈 제도 활성화와 △기술거래 협력체계 구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소속 인력이 현장에서 기술이전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 테크 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중개 및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여름철 무더위 쉼터 운영

관내 영업점 52개소·지역농·축협 본지점 200개소 개방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전북 관내 농협은행 영업점 52개소와 지역농·축협 본지점 200개소를 개방해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 더위에 지친 도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은 ‘무더위 쉼터’를 알리는 현수막과 스티커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영업점 내 대기공간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 방문 시 시원한 음료와 함께 휴식공간을 제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 많은 도내 농촌 지역에서 농협의 무더위 쉼터는 열사병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무더위에 지친 도민들 모두가 전북농협의 무더위 쉼터에서 활력을 되찾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희망한다”며 “전북농협은 항상 도민과 도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농협은 쿨스카프 및 쿨타월 등 안전물품을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